

목포·순천·담양·강진서 문화난장 열고 양림동서 모던보이 되어 쌀롱문화 즐기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에 24개 사업에 28억원을 지원했던 문광부는 올해는 41개 사업을 선정했고 예산도 39억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참여했던 주식컴퍼니의 '1930 양림쌀롱', 전남관광문화재단의 '야간작업'이 우수 단체로 뽑혀 다시 지원받았고 (주)잇다의 '수요일N 樂華롭게 만원(滿員)극장'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해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문화가 있는 날'에 담양에서 진행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야간작업' 담빛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옛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전남문화관광재단 '야간작업'=지난해 순천과 담양에서 진행했던 '야간작업' 프로젝트를 올해 목포와 강진 담양까지 4곳으로 확장해 문화예술시장 '야간작업'으로 변화시켰다. 지난해에는 국비 1억 6000만원과 함께 담양과 순천 매정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우수단체상을 수상하며 성과도 인정받았다. 올해는 국비 2억1000만원과 4개 시군에서 모두 9000만원을 매칭, 총 3억원으로 총 27회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문화난장이 펼쳐지는 곳은 목포 오거리 일대, 순천 문화의 거리, 담양 담빛길, 강진오감통과 강진아트센터로 각 지역의 문화 거점들이다. 순천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삼았다. 기억의 집, 700년 골목길(향동), 시민다리의 여인들(중앙동) 등에서 퓨전 국악 공연, 무비스타와 패션, 물축제와 납량특집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포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목포 1897'이 주제다. 목포 근대 역사관, 옛 이상훈 가옥, 유달초(국립심상소학교), 동명동 77계단 등 근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에서 아트마켓, 문화 투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강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참여하는 장점을 살려 연극, 오페라-갈라 콘서트 등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기획을 진행한다. 영상·미술 체험, 가면·인형 제작 체험, 음악 체험, 의상·분장 체험 등이 진행되며 '강진 스토리' 공연도 추진 중이다.

담양은 관방천, 대나무밭, 담빛길 등 담양의 명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투어와 역사 공부를 함께 하고, 야외오케스트라 공연,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국수거리 상점들과 연계, 무료로 국수도 제공한다.

◇주식컴퍼니 '1930 양림쌀롱'=지난해 마을 전체를 무대 삼아 근대 양림동으로 시민들을 초대했던 '1930 양림쌀롱'은 오는 29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늘어난 1억 7000만원이다. 양림동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1930년대 광주의 모던걸, 모던보이가 되어 낭만적인 공연과 유쾌한 대화가 넘쳐나는 쌀롱문화를 즐기게 된다.

올해도 광주의 근대를 소재로 문학, 전시, 음악, 영상,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티스트들이 쌀롱공연 및 강연을 선보이며, 양림동 주민들과 공예인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행사 등도 지속한다. 또 양림동에 위치한 여러 카페들과 문화공간들이 참여해 마음껏 커피데이, 쌀롱콘서트, 디제잉 파티,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꾸린다. 특히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과 DJJing그룹 b+가 함께하는 댄스파티 '양림에 댄스홀을 許하라', 작곡가 이승규의 '양림의 거리'콘서트, 장소 특정형연극공연 '1930모던걸다이어리',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쌀롱콘서트 등은 지역의 청년 아티스트가 참여,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방문객들은 근대 의상, 소품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잇다 '수요일N 樂華롭게 만원(滿員)극장'=전국의 유일한 단관극장, 8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극장을 거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는 청년문화콘텐츠그룹 '잇다'는 '2013 광산구커뮤니티매핑데이', 2014 광주북구 평생학습페스티벌 '3GO 가든산책' 등 행사 기획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외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아트피크닉',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청년도시컨퍼런스' 운영을 맡아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은 잇다는 광주극장에서 다양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양림쌀롱'과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운영팀과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중이다.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청은 13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사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최종 등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16번째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려는 예비목록이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는 10~16세기말까지 조성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불상과 석탑 그리고 별자리나 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칠성석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불교적 요소 뿐 아니라 밀교, 도교적 요소도 강하다. 사찰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재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2014년 전라남도로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이후 2015년도에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으로 유산 명칭을 변경했고 2016년 등재신청서 수정·보완을 거쳐, 2017년 1월 24일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가 있는 날' 광주·전남 지역특화 프로그램 살펴보니

■ 전남문화관광재단 '야간작업'

공연·물축제·아트마켓·문화투어... 27회 진행

■ 주식컴퍼니 '1930 양림쌀롱'

쌀롱 콘서트·디제잉 파티·연극... 29일 첫 행사

■ 잇다 '수요일N 樂華롭게 만원(滿員)극장'

광주극장서 영화상영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1930 양림쌀롱' 참여자들이 복고의상을 입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애 개인전

'전원교향곡'



▶'전원교향곡'

31일까지 아트스페이스갤러리

추억 속 우리네 모습들을 토속적 색채로 캔버스에 담고 있는 김경애 작가가 31일까지 아트스페이스갤러리(전남대치과 병원)에서 개인전 '전원교향곡'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원교향곡' 시리즈를 공개한다.

이 시리즈는 캔버스를 9개 화면으로 각각 다른 풍경을 담는다. 내모 반듯하게 그려진 집들은 구도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푸른 나무를 등장시켜 시각적 편안함을 연출한다.

소쿠리를 머리에 인 여인, 염소에게 풀을 먹이는 남성, 소와 함께 걷는 어린

이 등 그리던 세월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소재다. 등장인물들은 각 구역을 넘나들며 작품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다.

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바닷가, 광주리에 든 고기를 옮기는 모습 등 작품마다 다른 분위기를 담아낸 게 특징이다. 김씨는 현재 한국미협, 세계미술협회, 누드크로키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 전남미술대전, 한국여성미술공모전, 일본국제공모전 등에서 입상했다. 태극, 대만, 몽골, 일본, 터키 등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개인전을 13회 여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530-3066. /김용희기자 kimyh@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광명전 18)

아프리카 신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예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연장을 찾아서② 물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풍피두센터

노중은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정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춘열 FA '100억' 대어 기아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

예향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③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북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문화 화제

문인 배움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영은,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트렌드 따라잡기③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까 'So, yolo'

남도 문화특집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투적 타고 강진만 안팎 연탄불고기백반 갈바탕 등 전라남도 및 노도연(마량수신사당, 후기)의 전라북도

문화와 한국의 뜨거운 품은 정용 화신향